인천시, 봄 신학기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

교육청·군구 등 학교 집단급식소 합동 점검
급식시설 기구 세척·조리종사자 등 위생관리

인천시는 봄 신학기를 맞아 2일부터 22일까지 교육청, 군·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학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급식과정에서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 및 유치원 급식소, 식자재를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490개소에 대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지도·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학교 △식품위생법 위반이력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급식 대체식·임시급식 납품업체 등이며, 다빈도 제공식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기구 등의 세척·소독관리, 식재료 단계별(구입·보관·조리·배식) 위생관리 상태 및 위생적 취급, 조리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이며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김석철 보건복지국장은 "계절적인 기온상승에 따라 개학 초기에 학교 급식 식중독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욱 기자 kjo@hyundaiilbo.com

강화군노인복지관,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찾아가는 네일샵' 25개 경로당 150분…내달까지 50곳 추가 방문

강화군이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사업으로 찾아가는 네일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사진: 인천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군노인복지관(관장 윤심은)은 오는 4월까지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으로 '찾아가는 네일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찾아가는 네일샵 프로그램은 그동안 고생한 어르신들의 손을 아름답게 가꿔 드린다는 취지로 2명의 전문 네일아트 강사들과 경로당을 방문하여 진행한다. 지난 2월 20일 선원면 지산1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개 경로당을 방문 해 약 150분의 어르신들에게 네일아트를 해 드렸다. 4월까지 약 50여개 경로당을 추가 방문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처음으로 네일아트를 받게 되어 너무 고맙고, 예쁘지 않은 손도 자꾸 보게 되어 행복하다"고 했다.

윤심 관장은 "어르신들의 만족하신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하고, 활기찬 경로당 조성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해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종욱 기자 kjo@hyundaiilbo.com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등 5대 전략 논의

서구 사회보장협 대표협 회의

인천 서구는 지난달 27일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업무 논의를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서구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근거한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심의·자문 기구로 강범석 서구청장과 정관성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9명,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직 위원 13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 심의,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및 성과 분석 결과, △2023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으로 총 3건의 안건이 상정됐고 △2022년 협의체 보조금 결산 보고, △2023년 협의체 예산 보고, △2023년 협의체 사업계획으로 3건의 보고가 이뤄졌다.

협의체는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구 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5대 전략과제(△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꿈을 키우는 도시, △장벽 없는 도시, △행복한 청춘을 누리는 도시, △함께 잘살고 건강한 도시), 27개 보장영역과 56개의 발전전략을 체계화했다.

예산액은 248억 원으로, 육아 및 돌봄 커뮤니티 공간 확대, 장애인 행복드림타운 건립,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고령화 친화형 여가복지 시설 확충, 권역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LOT 스마트 플러그 운영, 협의체 8개 분과별 특화사업 개발·운영 등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와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강동희 기자 kangyh6240@naver.com

서구 지역사회보장협 대표협의체가 사회보장업무 논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인천 서구 제공)

옹진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정기회의

부서별 역할·타지자체 사례 등

인천 옹진군은 지난 28일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올해 상반기 옹진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옹진군은 지난해 9월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기 구성된 '옹진군 인구정책 TF'를 장기·지속적 개념의 '옹진군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했었다.

실무추진단은 민선8기 군정의 성공적 도약과 인구 3만을 향한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분야별 맞춤형 정책 관리를 위하여 △일자리·경제 분야 △주거·교통 분야 △아동·보육·교육 분야 △문화·복지분야 △총괄지원 분야 총 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정기회의는 행정복지국장을 단장으로 행정지원과장 및 주요 부서 담당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향후 인구정책 수립 용역에 대한 부서별 역할 논의, 타 지자체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부서간 협업·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섬 지역 오전출항 여객선 운항 지원 △옹진군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군민 안전보험 가입 등 신규사업 발굴 9건과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2년 연속) △일자리 사업 자격 요건 완화(전입자 추가 선발) △주택개량 사업 지원기준 완화 등 주요사업 강화 5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교육경비보조 추진 등 특례 사항을 '옹진형 인구 끌림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추진 현황 공유 및 평가기준·투자계획 방향 논의, 전년도 인구정책 주요 사업 추진실적, 올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유동수 기자 yds@hyundaiilbo.com

편집=정다정 기자

돋보이는 의정활동 임관만 인천시의회 건교위원장(중구 제1선거구)

"현장에서 답 찾는 실사구시 정치인"

현장에서 답 찾는 실사구시 정치인이 되겠다는 임관만 위원장 (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전세사기 문제 정부 등 협력 방안 구축

신흥동 옛 시장관사 개방 재정비 추진

제물포르네상스 등 중구 옛 명성 찾기

본지는 지난 15일부터 '돋보이는 의정활동' 란을 신설해 민선 8기 인천시광역의원과 기초의원들의 활약상과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 등을 연재 보도한다. (편집자 주)

- 정치 입문 계기는?

강원도에서 태어나 결혼과 함께 인천에 이사온 지 35여 년 됐다. 율목동에 터를 잡고 살면서 지역의 조기축구회, 자율방범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의 다양한 지역활동을 해왔다. 활동하면서 맺어진 주민들과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정치를 하게 된 가장 큰 자산이 됐다.

이어 동네 통장으로 봉사하면서 선거 출마를 권유받고 정치의 길을 걷게 됐다. 4·6·7대 중구 구의원으로 12년간의 의정 활동했던 경험이 시의회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작년 지방선거에 시의회 입성 후, 현재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정치는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거창하거나 멀리 있지 않다. 정치도 결국 주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때로는 만족스러운 답을 드리지 못할 때는 안타까움이 크다.

- 광역의원 당선 8개월 의정활동 소회는?

작년 6월 지방선거에서 중구 제1선거구에서 당선돼어 의회 활동을 하게 해주신 지역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9대 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인천시의 주요 핵심사업과 중구의 지역사업에 대한 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로 분주하게 보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점과 지역 숙원사업을 속히 진행해 달라는 주민 및 단체 등의 민원을 의회 방문과 전화 요청을 통해서 받고 있다. 시의원이 되고 보니 주민들의 기대 또한 커지면서 그 책임감도 막중해졌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다. 재개발, 재건축, 버스·택시·지하철 등의 교통 분야 등을 다룬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경기 둔화에 주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감소되고, 서민들의 전세사기 극성에 대한 정책이 시급해졌다. 반지하 침수, 늘어나는 빈집 활용 등의 문제도 꼼꼼히 챙겨야할 사안이다. 이에 대한 정부·인천시·건설교통위원회 등의 협력 방안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중구의 골목길 재생사업인 신흥동 옛 시장관사 일원을 개방하여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역사적인 여행길 조성하는데 힘쓰겠다.

특히 최근 인천시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은 중구 영종도를 영종구로 분구하고, 중구의 원도심 지역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는 골자의 지역구 현안분이다. 이와 같이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중구 입장에서는 원도심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따라서 원도심 가속화 우려를 막기 위해서는 중구지역의 고도제한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중구의 원도심은 많은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곳이지만 개발을 위한 제약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요 의정활동 및 향후 관심분야는?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로 시작해서 교통·해양·항공·도시재생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교통은 △인천시를 순환하는 지하철 3호선 △소외지역 대중교통 지원 △인천발KTX 개통 추진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 등 인천시민의 교통수단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경주하겠다.

해양은 △섬 발전을 위한 관광 활성화 △해양쓰레기 △해양친수도시 조성 △수산종자 지원 △어촌 정착 지원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도시재생은 시가 추진하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2023년부터 재개발 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로 후보지를 결정하는데, 적절 여부 및 주민 의견 반영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유정복 시장의 핵심사업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내항재개발이 원도심 개발의 성공모델이 되어 중구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지역사업으로 △교통정책 해결을 위한 만석우회고가 정비사업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인천발 KTX 인천역 정차 등을 추진해 지역경제활성화가 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

향후 관심분야는 건강과 복지 부분이다. 율목동에 초기 이사해 왔을 당시 조기축구회 회장 등을 한 인연으로 운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이를테면 어르신들 운동동호회와 같은 예로, 학교 운동장 임대 부분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간편하게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건강 예방 차원의 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싶다.

아울러 노인 병원, 요양병원 등도 관심 분야이다. 차별없이 진료받고 요양할 수 있는 쾌적한 의료권을 누릴 수 있도록 어르신 복지 분야도 관심을 갖겠다.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의 건설, 교통, 해양, 항공, 도시재생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무이다. 이를 통해 인천시민의 삶이 더욱 향상되도록 중앙정부·시정부·시의회가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겠다.

2023년도 인천지역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관심을 쏟고 특히 옹진, 강화 등 원도심 소외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의 답안이 되겠다.

당장은 시민들의 민원해결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시민이 원하시면 어디든 뛰어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사구시의 정치인이 되겠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